



방광염

황경진 박사 | 그레이스병원

성인 여성들 중에 나타나는 가장 많은 질병 중의 하나가 방광염이다. 방광염은 일단 발생하면 그 증상이 고통스럽고 신경이 몹시 쓰이게 되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그대로 방치할 경우 노관염, 신장염으로까지 병이 커지게 되므로 조기치료를 해야 한다. 방광염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뉘어 진다.

원인과 예방

방광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에서 방광 안으로 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균은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간 것일까?

방광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균은 신기하게도 대장균(E.coli)으로서 항문 주위와 직장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균이다. 대변 속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이 균이 방광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경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인 경우 항문에 가장 가까운 질속이나 요도 입구에 균이 묻어 들어가 모여 있다가 방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항문과 질 주위를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이 방광염이 있을 때 질염 치료를 함께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무조건 균이 들어간다고 해서 염증이 반

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염증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방광염은 주로 몹시 피곤하거나 성교 직후 혹은 질 속에 피임제제인 살정제 젤리나 피임기구를 삽입하여 균이 들어갈 기회가 많았을 때 혹은, 오줌을 너무 오래 참았을 때, 또 최근 방광염이나 요도염을 충분히 치료하지 않아 아직도 균이 남아 있는 상태 등이 원인인자가 된다.

방광염 자체는 대수롭지 않은 질환이지만 자주 재발한다거나 오래도록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할 경우 급성신우염이나 요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엔 신장기능 저하로 인해 신부전 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종류

가장 많은 급성방광염을 비롯하여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 되었지만 방광점막을 보호하는 물질의 결함에 의해 방광점막하에 병변을 일으키는 간질성(interstitial cystitis)방광염, 혹은 신혼여행 시 처음 성교 후에 잘 나타난다고 하는 허니문 방광염, 또 자주 재발하게 되는 재발성 방광염 등이 있다. 어떤 종류의 방광염이든 기본적인 증상과 치료요법은 비슷하다.



증상

일단 방광염이 생기면 환자는 갑자기 소변 시 통증과 빈뇨, 급뇨증상이 있고 또한 소변을 누워도 시원하지 않으며 심한 경우엔 혈뇨를 나타낸다. 혈뇨란 소변에서 혈액이 나오는 상태인데 아주 선명하게 빨강거나 출혈이 오래된 경우엔 콜라 같은 검은 색 내지 갈색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혈뇨가 너무 심하거나 심한 통증이 동반 시에는 엑스레이 촬영이나 특수 촬영을 하여 요석(요관 내 돌멩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

무증상세균뇨란?

전혀 방광염의 증상 없이 소변에 균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임신한 경우나 혹은 임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급성 신우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 임신 중에는 조산으로 인한 저체중아, 임신중독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 증상이 없더라도 평소에 방관이 약한 분들은 소변배양검사를 하는 것이 비용은 들더라도 도움이 된다.

진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하게 되는데 소변검사를 해 보면 백혈구 세포가 많이 나오거나 심한 경우 혈뇨가 동반된다. 치료를 해도 병이 호전되지 않고 재발이 잘 되는 경우에는 신장

기능검사와 배양검사까지 하고 더욱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광경검사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예방

평소 방광염에 잘 걸리시는 분들은 몸이 조금만 피곤하거나 무리했을 때 가장 먼저 방광염 발생이 잘 되므로 얼른 휴식을 취하면서 미리 따뜻한 물에 좌욕이나 온수욕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서 수면을 취하여 일단 기운을 회복하도록 한다.

치료

적절한 항생제요법과 휴식과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또 즉시 치료도 잘 된다. 항생제 요법은 약 5~7일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일회요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물을 많이 먹거나 수액요법으로 수분섭취를 하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확실히 좋아질 때까지 치료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데지 않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담그는 좌욕을 하면 방광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재발이 심한 경우엔 배양검사나 방광경검사를 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좋다. 며칠간 약물치료를 하여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여 무조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노배양검사를 하여 확실하게 전혀 균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Z]